

#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 팔걸어

### 전북교육청, 2021년 공동통학구형 어울림학교 18개교 등 추가 선정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섰다.

지난달 3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5층 회의실에서 제2회 농어촌학교 교육발전 협의회를 열고 2021년 어울림학교 지정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2021년 공동통학구형 어울림학교 18개교(유형별 5개교 포함), 초중등연계형 어울림학교 1

개교를 추가로 선정했다.

공동통학구형 어울림학교는 인근 큰 학교와 소규모학교를 공동 통학구역으로 설정해 학생 유입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정읍 이평초, 남원 수지초, 덕과초, 김제 남양초, 봉남초, 완주 가천초, 임실 신흥초, 고창 고수초, 대산초, 성송초, 흥덕초, 부안 계화초, 동북초, 동진초, 백룡초, 부안남초, 우덕초, 주산초 등 18개교가 지정됐다.

초중등연계형 어울림학교는 계북초

(계북중)가 선정됐다.

또한 2020년 어울림학교 지정학교 121개교는 3년 주기 종합평가 실시 후 재지정됐다. 지정기간은 2021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농어촌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경쟁력을 제고하고, 교육공동체의 참여·소통·협력을 통한 균형 발전 정책의 내실화를 도모해 나갈 것"이라며 "어울림학교 활성화를 통해 함께 사는 우리 마

을, 행복한 우리 학교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2014년부터 농어촌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역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질 높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어울림학교를 지정·운영해 왔다. 특히 어울림학교는 공동통학구형, 작은학교협력형, 초·중등학교 연계형, 학교-마을 협력형 네 가지 유형으로 학생들에게 삶과 연계된 배움을 주고 자존감을 키워주며 마을교육과 함께하는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목적을 두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LINC+사업단은 최근 창의적 문제해결이론(TRIZ)을 적용한 2020 TRIZ 전국경진대회를 실시간 온라인(Zoom)으로 개최했다.

## 전주대, 학생들 문제해결 능력 길러

### 2020 TRIZ 전국경진대회 성료... 전국 10개 대학 20팀 참여

전주대 LINC+사업단은 최근 창의적 문제해결이론(TRIZ)을 적용한 2020 TRIZ 전국경진대회를 실시간 온라인(Zoom)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주대는 학생들의 문제해결 능력 배양과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해 2015년부터 매년 TRIZ 경진대회를 개최해 왔으며,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10개 대학, 20팀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전국 10개 대학에서 48개 과제가 접

수됐으며, 이 중 '마스크 착용 시 귀가 아픈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한 금오공과대의 경성대의 Mask&Peace팀(발표자신호범)이 대상(전주대학교 총장상)을 수상했다.

주승 단장은 "코로나19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 준 학생들이 대견하고 그들의 높은 열정과 문제해결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대회였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 원광대, 수시 면접 '전면 비대면으로'

### 코로나 확산 따른 수험생 불안감 해소·안전성 확보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가 교육부 권고에 따라 수험생들의 안전을 위해 12월 10일부터 진행되는 2021학년도 신입학 수시모집 면접고사를 전면 온라인 비대면으로 전환했다.

원광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지역사회 감염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면 면접고사 진행 시 수험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부적인 판단에 신속히 전면 온라인 비대면 면접고사로 전환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12월 10일 진행될 체육특기자 전형 면접, 12월 11일 지역인재 전형 면접, 12월 12일 학생부종합전형, 소프트웨어열린인재전형, 기회균등전형(의·약학계열), 농어촌학생전형

(의·약학계열) 면접은 일괄 온라인 비대면 면접고사로 진행되며, 실시간 형태의 경우는 특성상 비대면 진행이 어려워 엄격한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 아래 대면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와 관련 수험생에게 각자 문자로 발송될 예정이며, 각 전형 및 모집 단위별 면접고사 문항과 답변 시간 등 자세한 사항은 원광대 입학안내 홈페이지(ips.wku.ac.kr)에 안내될 예정이다. /역산=장양원 기자

## 전주비전대, 일학습병행 참여기업 협약

### 중소기업 동반성장 등 유도

전주비전대학교(총장 홍순직)는 지난달 30일 통합멀티미디어컨퍼런스룸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지사장 김범구)와 코리아모터스 등과 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홍순직 총장, 정석훈 대학혁신본부장, 최승훈 산학협력단장, 김범구 입학관리팀장, 김라주 지사장, 송제일 부장, 신순혜 차장, 일학습병행 참여기업에서는 코리아모터스 나정환 대표, 경성모터스 고현철 대표, 전주탄소자동차공업사 한명욱 대표 등이 참석했다. 주요 협약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전주비전대 임직원, 기관 내방고객, 일학습병행 참여 기업 학습근로자들이 대상기업을 내방 및 차량정비 받을 시 기업에서 일정 금액 할인 서비스 제공(정비비용 10% 할인, 연 1회 위생액 무료 교체),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전주비전대에서는 해당 서비스 이용 홍보를 통해 다수 고객이 대상기업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홍순직 총장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지금까지 매년 10회 이상 자격시험장으로 활용중이고, 그 덕분에 우리 대학은 전복에 자동차정비업무에 종사하거나 또 진출하는 등 자동차 전문대학으로 발돋움 할 수가 있었다"며, "이러한 명성은 단순히 우리 대학의 노력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자리에 참석해 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지역자동차산업체 관계자들의 협력으로 이뤄진 결과"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 일자리 수급의 안정화를 이뤄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자"며 협약 소감을 피력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학교는 지난달 30일 통합멀티미디어컨퍼런스룸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와 코리아모터스 등과 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군산대, 전기차용 리튬이차전지 기술개발동향 워크숍

군산대학교 지역기반 융합소재 인력양성사업단은 최근 대학본부 대회의실에서 미래차기술연구 컨퍼런스 리튬이차전지 기술개발 동향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워크숍은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LINC+ 사업단과 공동으로 개최했고,

군산시와 전북군산형일자리건설사업단이 후원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5명의 관련 전문가들이 ▲군산지역 전기차 개발현황(박호석 ㈜형신 부사장, 장흥무 에디슨 모터스전무) ▲xEV 기술동향 및 주요현안(신동현 한국자동차연구원

전기에너지저장연구센터장) ▲전북권 리튬이차전지 연구개발동향(김영권 전북테크노파크 신재생에너지사업단장) ▲전기차용 이차전지 개발동향(이정두 삼성 SDI연구소 프로)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미래차로서 전기차의 핵심부품소재인 리튬이차전지산업에 대한 기술개발과 향후 전망을 논의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 한국조사연구학회 회장 선출

### "조사 환경 대응·연구 신뢰성 확보 최선"

전북대 설동훈 교수(사회학과)가 한국조사연구학회 제14대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전했다.

지난달 30일 전북대에 따르면 설동훈 교수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조사연구 학계 및 실무 분야 전문가들과 조사연구분야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

한국조사연구학회는 1999년 11월 창립돼 조사와 연구방법론의 발전을 위해 대학 및 연구기관, 정부기관, 조사기관 등 다양한 기관들과 교류하고 있다.

또한 조사 윤리강령 및 조사연구윤리규정, 여론조사보도지침의 제정과 한국갤럽상, 한국조사보도상

을 수여하는 활동 등을 통해 국내 조사연구분야의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설동훈 교수는 "최근 급변하는 조사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학문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며 "조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을 구축하고 조사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